

등대의 아름다움을 한눈에...목호등대에서 등대사진전 개최

-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등대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세계 등대의 날(매년 7월1일)을 기념하는 「제3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맞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목호등대 해양문화공간에서 '등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등대주간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운영되는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립등대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역대 등대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에는 울릉도 태하등대, 주문진등대 등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등대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모습을 통해 해양안전 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등대가 지닌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목호등대는 1963년 최초 점등 이후 동해안을 다니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해왔으며, 현재는 연간 30만명 이상이 찾는 강원도 대표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대가 지닌 해양 문화의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 금 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이 유 경 (033-520-6279)



도재비골 매표소 옆 벽면



목호등대 광장 벽면